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참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오진규 원장이 지난 25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 캠페인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오진규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책임감으로 긍정양육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은 지난 23일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 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일명 BBP챌린지)'는 지난해 8월 환경부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공공기관·기업·국민들에게 전파시켜 착한 소비 실천 확산을 위해 시작한 챌린지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조백환 원장은 군산의료원 조준필 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조백환 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진안군의료원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 소성면 이장협·체육회, 박원일·장연금 팀장에 감사패

정읍시 소성면 이장협의회와 체육회는 지난 25일 박원일, 장연금 두 팀장에게 적극행정을 펼친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패에 담아 전달했다.

박원일 팀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먼 산업팀장을 맡아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장연금 팀장은 올해 1월부터 먼 맞춤형복지팀장을 맡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충과 민원을 돌보며 복지·지역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이장과 민원인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천동농협, 제12회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지난 26일 '제12회 구천동농협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영 무주부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문은영의원, 윤정훈 도의원, 광동열 무주농협 조합장, 원로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2개면(설천, 무풍) 3팀이 참가,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으로 열전을 펼쳤다. 무주군 설천면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원로조합원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가활동과 친목도모를 위한 지역화합의 장이 되었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소득 향상에 앞장서 오신 원로조합원들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 돕는 재미에 살아요"

서노송동 거주 강귀례 할머니, 중앙시장서 잡화 판매... 20년간 월드비전에 매월 2만원 후원

자신도 생활이 어려워 중앙시장에서 잡화(고무줄, 실, 바늘)를 판매하며 생활하고 있는 전주 시내 한 어르신 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주시 서노송동에 거주하는 강귀례 할머니. 그는 노점을 오가며 빈 손수레를 가지고 다니다가 가게 앞에 파지 한 장이라도 보이면 손수레에 싣고 다니고 있다.

최근 강 할머니는 손수레가 무거워서 끌기에도 벅찬 데도 열심히 손수레를 끌며 가고 있었다.

"요즘은 다이스가 생겨 시장에 나와도 벌이도 시원치 않고 나이드 나이드 민품 몸이 안 아픈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이 자신의 몸을 지켜주는 자양분이라고 하신다.

강귀례 할머니는 서노송동에 거주하며, 올해 72세의 고령임에도 아직도 얼굴은 동안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에 20년간 매월 2만원씩 변함없이 후원하고 있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년 전부터 컨설팅월드와이드 한국재단이라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기아 단체에 1만원을 더해 현재는 3만원씩 매월 자신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분이다.

40대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정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면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하신다.

대구 지하철 참사, 위도 참사 등 국가적 재난으로 방송에서 도움의 요청이 오면 언제나 앞장서 왔다고 했다.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에게 고무줄을 팔아 번 꼬깃꼬깃한 돈을 모아 봉사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한다.



자신은 시골 부잣집에서 자라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두고보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한다. 이전에 장사가 잘될때에는 수재의연금이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넉넉하게 더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는 벌이도 시원치 않아 남을 돕는 일도 시원치 않다고 겸양의 마음을 보이고 있다.

요즘은 그래서 폐지라도 모아서 한 톨 두 톨이라도 더 쌓이면 좀 낫겠다고 생각하여 폐지도 모은다고 했다.

세상은 이처럼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고마운 손길이 있기에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간다.

오늘도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길에서 오가는 손님을 대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고무줄이며, 실과 바늘을 팔아 가져 모은 돈으로 남을 돕는 귀한 손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진다.

강귀례 할머니가 현재도, 앞으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가슴 따스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제2회 장수천천사랑로트트가요제, 8월 15일 개최

제2회 장수천천사랑로트트가요제가 다음달 15일 장수군 천천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장수군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정지역 사과와 한우의 고장인 장수천천사랑을 위한 로트트가요제를 통해 발전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장, 찾아오는 고장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요제는 15일 오전 10시 예선, 오후 2시 30분 본선으로 나눠 치러지며 국내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단, 전국대회 대상 수상자와 최우수 수상자는 제외되며, 상업적인 참가자도 역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8월 8일 오후 5시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1-6669, 010-7304-5665, 063-287-6676)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소아치과학회 양연미 부회장, 김제시 고향사랑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6일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양연미 교수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주면 출신인 양연미 부회장은 "평소 고향 김제에 대한 애정이 깊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출향인들의 관심과 기부 참여로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을 응원하는 양연미 부회장의 따뜻한 마음과 애정에 감사드리다"며 "소중한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부액의 30%는 담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제=곽도태 기자

진안군-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

진안군은 국가보훈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과 손잡고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6일 군수실에서 전춘성 군수와 신형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예우 증진을 위한 양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군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관내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공단은 추천받은 국가유공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긴급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의 주거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발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전춘성 군수는 협약식에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따뜻한 보훈 복지의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자립역량 교육

남원시는 지난 26일, 남원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역량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지원사업 통장 가입자 및 읍면동 자활참여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통장 유지 및 지급 요건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안내와 함께 '합리적 금융 소비'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공단 장형석 과장을 초청해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연금자산 관리 방법, 기초·국민·주택연금 활용법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건전한 소비 생활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자산형성 가입자들의 중도 포기 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자립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계층이 꾸준히 자금을 형성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가족사랑멘토링 프로그램 개강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최근 결혼이민자 대상 멘토링 사업 '슬기로운 언니생활'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슬기로운 언니생활'은 한국생활에 적응이 필요한 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같은 언어권 멘토링 그룹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적응 및 원만한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주군가족센터는 베트남, 태국 출신 국적의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5년 이하의 멘티와 5년 이상의 멘토를 총 4 그룹으로 나누어 7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기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과의 연계로 전문적성 검사 및 정서 치유 꽃꽂이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프로그램 담당자는 "멘토링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문화 가정의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을 회복



하여 안정적인 한국 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슬기로운 언니생활을 비롯한 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이용은 전화(063-322-113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수호천사봉사단, 독거 어르신 새 보금자리 마련

남원시 왕정동은 관내 수호천사봉사단(단장 이도순)이 지난 24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독거 어르신의 새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빈집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자(81세, 여)는 배우자 사망 이후 남원출생에서 관리사무실로 사용했던 오래된 건물에서 무료로 생활, 최근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마을 내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마을 통장(이정근)이 동 맞춤형복지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호천사봉사단이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날 봉사활동은 집 안에 있던 장물 등 사용하지 않는 가재도구를 밖으로 옮기고 도배와 장판 교체작업 등 내부 정리를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탁구협회, 키다리 아저씨 자처 장학금 기탁

무주군탁구협회가 지난 27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제10회 무주 반딧불이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 개최식에서 장학금을 기탁한 이주원 회장은 "탁구 동호인들의 건강한 마음과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이 무주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오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해마다 전하는 장학금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충전해 주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탁구협회는 2012년부터 3백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무주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초등학교 20명(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피핑클럽"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